

〈보리밥 장군〉에 나타난 ‘대식’ 화소를 통해 살펴본 독립과 자아실현의 의미

한상효*

— <차 례> —

1. 들어가며
2. 〈보리밥 장군〉의 진승양상과 서사구조
3. 탐식과 의존의 문제로 살펴본 대식과 힘의 결핍 화소
4. ‘길 떠남’과 ‘반복구조’를 통한 성장과 가능성의 확장
 - 4.1. 길 떠남을 통한 대식의 충족과 성장
 - 4.2. 반복구조를 통한 가능성의 확장
5. 나가며

〈국문초록〉

본 논의는 〈보리밥 장군〉 설화 속의 중요한 화소인 대식의 양상과 의미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에 〈보리밥 장군〉 설화는 거인 신화와 전설을 계승한 민담이라는 측면에서 다루어져 왔으며, 민담 속의 대식 화소는 원형적 서사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고 신화 속의 신적 존재 또는 거인의 힘이나 능력만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화소에 있어 중요한 것은 의미적 개방성과 다의성이라고 할 수 있다. 〈보리밥 장군〉에 관한 논의가 더욱 분명해지고 풍부해지려면 한국 서사 속에서 대식의 양상과 의미가 총체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보리밥 장군〉에서는 대식 화소와 힘의 결핍 화소가 함께 나타난다. 보리밥 장군이 대식성을 가진 다른 존재들과 차별되는 특수한 지점이 여기에 있다.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대식이 가진 양가적 의미를 밝히고 식욕을 통해 나타나는 관계의 문제에 대해 주목해 보았다. 그 결과 보리밥 장군의 힘의 결핍은 의존적인

* 건국대학교 국어국문과 박사수료

구순육구로 ‘개인성’과 ‘독립성’을 상실한 주인공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보리밥 장군>은 그러한 의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련의 극복을 통한 자아의 성장과 자기실현의 모습을 보여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길 떠남’과 ‘반복의 구조’이다. 주인공은 길을 떠남으로서 부모의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또한 반복의 구조를 통해 본능적인 힘에서 지성적인 힘을 갖춘 더 큰 존재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보리밥 장군> 설화는 대식 화소에 대한 보편적인 사유를 수용하고 다른 화소와 변형·결합되면서 의존을 극복하고 성공한 삶을 이뤄낸다는 새로운 의미와 삶의 문제를 제공하고 있다.

□ <보리밥 장군>, 대식, 힘 결핍, 탐식, 의존, 순차구조, 대립구조

1. 들어가며

여느 문학과 마찬가지로 설화 역시 인간의 중요한 문제를 화두로 삼고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사화한다. 설화는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인 삶의 문제로 여기고 또 바람직한 결론이라고 동의한 것이 오랜 세월을 거쳐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¹⁾ 이때 설화에 반영되는 삶의 문제는 중심적인 화소²⁾를 통해 드러난다. 그런 점에서 화소는 설화가 인간의 어떤 문제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톰슨의 화소 색인³⁾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설화는 다수의 화소로 구성되어 있고, 화소

1) 브루노 베텔하임, 『옛이야기의 매력』 1, 시공주니어, 2001, 62쪽.

2) 화소는 형태와 의미상의 실제적 구성요소가 되는데, 화소는 특이하고 인상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쉽사리 파괴되지 않고 용이하게 기억되며 독립적인 생명을 지닌다. (장덕순 외, 『구비문학 개설』, 일조각, 2012, 85쪽.)

3) Stih Thompson, Motif-index of folk-literature: a clasifcation of narative elements in folktales, balads, myths, fables, mediaeval

들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의 방향과 반경은 쉽사리 한정되지 않⁴⁾기 때문에 화소의 개방성은 설화 분석의 구체적인 방법이 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보리밥장수> 설화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대식'이라는 중심 화소에 주목하여 이 설화가 담아내는 화두와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맹자』에서의 “식과 색은 곧 성이다(食色性也)”라 말과 『예기』에서의 “음식과 남녀에는 인간의 가장 큰 욕망이 존재한다(飲食男女人之大慾存焉)”라는 말처럼, 식욕은 성욕과 더불어 인간의 대표적인 본성으로 일컬어진다. 다른 욕망과 달리 식욕과 성욕은 개체와 종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개체 유지를 위해서는 음식의 섭취가 필요하고, 성욕을 통한 개체의 지속적인 보존이 필요하다. 한편으로 주체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무거운 죄악으로 인식되어 통제의 대상이 된다는 점도 두 본성이 가진 공통점이다. 이처럼 인간의 본성인 식욕과 성욕은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는 중요한 소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식욕은 성욕에 비해 설화의 중심적인 화소로 놓이는 경우가 드물었다. 식욕은 성욕에 비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낮섬과 특별함을 특징으로 하는 화소의 차원으로 부각되기 쉽지 않았던 까닭으로 보인다. 다만 '대식(大食)'은 화소가 될 수 있을 만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식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나 대식은 일반적인 수준을 뛰어넘는다는 점에서 특별함을 지니고 있으며,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이야기가 전승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다.

설화 속 대식 화소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서사무가와 제주도의 거인설화를 통해 다뤄져왔다.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현

romances. Vol 1 to 6, Bl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 1960.

4) 신동훈, 「서사적 화두를 축으로 한 화소-구조 통합형 설화분석 방법 연구」, 『구비문학연구』 46집, 한국구비문학회, 2017, 44쪽.

길언은 제주도의 장수설화에 대한 연구에서 대식가들인 장사들에 관한 전설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대식가인 장사들은 초인적인 능력을 지닌 것에 비해 비천한 신분으로 태어나며, 비참한 최후를 맞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장사의 배고픔과 좌절’은 끝없는 욕망 속에서 새로운 탈출을 시도하며 방황하다가 좌절·몰락하는 제주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이 이 연구의 핵심 주장이다.⁵⁾ 김현선은 <퀘네깃당본풀이> 속에 나타난 대식성에 주목하였다. 이 연구는 퀘네깃또의 식성을 언급하면서 대식은 뛰어난 영웅적 능력을 담보하는 것이며, 궁핍한 처지에 놓인 제주도 당신들의 처지를 반영한 것이라 하였다.⁶⁾ 권태효는 거인 신격에 관한 논문에서 대식성을 거인신격의 면모 중 하나로 보았는데 특히 설문대 할망의 대식에 주목하면서, 이러한 대식 화소가 제주도의 장사전설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한다.⁷⁾ 또한 그는 다른 연구에서 제주도의 일반신본풀이인 <세경본풀이>의 정수남을 언급하고 있는데 정수남의 대식은 그가 가진 특별한 능력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세경본풀이>의 결말에서 정수남은 목축신으로 좌절하게 되는데 그가 신직을 얻게 되는 것은 이미 그가 대식과 마소를 다루는 비범한 능력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박종국은 제주도 설화에 나타난 거식성(대식성)에 주목하여 신화, 당본풀이, 전설을 분석의 사례로 삼고 있다.⁸⁾ 대식 화소에 주목하여 그 의미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성격이 비슷하나 본 연구가 주목하는 민담형의 <보리밥장수> 설화는 다루고 있지 않다. <보리밥장군> 설화를 연

5) 현길언, 『제주도의 장수설화』, 흥성사, 1981.

6) 김현선, 『제주도 뜻제와 퀘네깃당 본풀이 연구』, 『탐라문화』, 31권,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09~173쪽.

7) 권태효, 「거인설화의 전승양상과 변이유형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8) 박종국, 「제주도 설화에 나타난 巨食性의 의미 연구: 신화, 당본풀이, 전설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연구로는 김영경의 연구가 있다.⁹⁾ 이 연구에서는 대식 화소를 계승한 거인설화의 사례로 <호랑이 잡은 밥장수>를 들고 있는데 장르의 변화에 따라 화소의 형태와 의미가 변화한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장르의 변화라는 점에 치중하여 민담의 주인공이 약화된 거인이라는 점만을 강조하고 있어 좀 더 구체적이고 확장된 의미로서의 대식 화소를 주목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상의 연구의 결과를 볼 때 대식 화소에 관한 주제가 여러 번 논의된 것으로 보이나 많은 연구자들이 대식 화소를 다룰 때, 신화나 전설을 주 텍스트로 삼았다. 민담 속의 대식 화소는 원형적 서사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고 대식의 속성을 가진 존재는 신화 속의 신적 존재나 그에 버금가는 거인으로 제한되었다. 대식성은 신적 존재들의 고유하고 본질적인 성질이나 영웅적 능력을 담보하는 요소로 설명되고 있으나 보편적 인물이 가진 대식성을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들은 제주도라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전승된 자료를 주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식 화소에 관한 논의는 제주도의 문화·역사·지리에 관련하여 설명되고 있다. 물론 대식 화소가 나타나는 설화들이 제주도를 배경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설화의 민속학적·역사적 접근에 의의가 있는 것도 사실이나, 정작 설화 특유의 허구적·상상적 세계 속에서 어떠한 의미로 상징화·의미화되고 있는지는 분명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대식 화소가 주로 신화를 텍스트로 삼아 진행되고 있는 것은 신화 속의 대식성이 원형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문화 전통 속에서 대식에 대한 논의가 더욱 분명해지고 풍부해지려면 한국 서사 속에서 대식의 양상과 의미가 총체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설화 속 화소에 있어 중요한 것은 의미적 개방성과 다의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9) 김영경, 「거인형 설화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것은 설화의 본래적 미적 특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설화 특유의 상상적 자유로움과 인식적 역동성이 효과적으로 발현된다. 이 논문은 대식 화소의 분석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설화의 다층적인 의미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신화 전설 속의 신적 존재나 거인 주인공이 아닌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민담 속의 대식 화소의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특히 대식 화소가 서사의 중핵을 구성하는 <보리밥 장군>¹⁰⁾ 설화를 중심으로 놓고 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보리밥 장군> 설화는 태어날 때부터 대식성을 갖고 있지만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그에 걸맞은 힘을 갖지 못한 주인공이 어떻게 하여 ‘장군’이라고 불릴 만큼 성공하는지를 밝히고 있는 설화이다. 이 설화 역시 ‘많이 먹는다.’라는 화소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을 중심으로 핵심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형태로 전승된 이야기이나 신화와 전설의 원형적 화소와는 다른 변형을 통해 새로운 의미와 삶의 문제를 제공하고 있다. 본론에서는 <보리밥 장군> 설화가 원형적 대식 화소를 수용 변이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민담 속의 대식의 양상과 의미를 살펴보겠다.

2. <보리밥 장군>의 전승양상과 서사구조

우선 <보리밥 장군>의 각편과 서사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보리밥 장군> 설화는 각편에 따라 ‘보리밥 장군’, ‘식대장군’, ‘힘없는 장군’과 같은 제목으로, 임석재의 『한국구전설화』에 5편 및 『구비문학대계』에 5편, 총 10편이 수록되어 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0) 각편에 따라 ‘보리밥 장군’, ‘식대장군’, ‘힘없는 장군’라는 제목으로 나타나지만 이 글에서는 이야기의 제목으로 가장 대중적으로 널리 쓰이는 ‘보리밥 장군’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번호	자료제목	조사지역	수록문헌	제보자
1	도둑소굴에 들어간 식대장군	구미시 장천면 상림동 상림	『대계』 7-16	곽종상
2	식충이가 장사 되다	속초시 설악동	『대계』 2-4	유만석
3	인각사 장군수와 식통장군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수1동	『대계』 7-12	김실동
4	호랑이 잡은 밥장사	춘성군 북산면 물노2리	『대계』 2-2	박광철
5	밥포수와 호랑이	춘성군 신북면 율문1리	『대계』 2-2	이태순
6	식충장군 도둑 잡다.	철산군 운산면 영동	『한국구전설화』 평안북도편Ⅱ	김경룡
7	식충이가 호랑이 잡다.	용인군 외하면 주의동	『한국구전설화』 평안북도편Ⅱ	장석규
		정주군 정주읍 성내동		탁시덕
8	보리밥 장군	선천군 군산면 장송동	『한국구전설화』 평안북도편Ⅱ	김찬건
		선천군 선천읍 천북동		이재언
		수청면 고읍동		이철
		선천군 선천읍 천남동		고황호
		정주군 광산면 염호동		규창옥
9	통장군	귀성군 관서면 조악동	『한국구전설화』 평안북도편Ⅱ	김치재
10	힘 없는 장군	선천군 대청면 고읍동	『한국구전설화』 평안북도편Ⅱ	이용일

이러한 각편들을 분석하기 위해 비교적 사건의 순서와 화소의 풍부함이 가장 충실하다고 판단되는 각편⑧ 『한국구전설화』 속 귀성군의 <보리밥 장군>를 선본으로 놓고 논의를 진행하되, 다른 자료를 통해 보충하는 방식으로 서사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보리밥 장군>의 구체적인 서사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옛날 밥을 많이 먹는 보리밥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대식성을 갖고 태어난 주인공]
- (2) 그는 밥을 서너 말이나 먹으면서도 힘은 하나도 쓰지 못한다. [힘의 결핍]
- (3) 부모가 그냥 두었다가는 집안을 망하게 할 것이라며 그를 내쫓는다. [집 떠나는 주인공]

- (4) 어느 날 호식 당한 집에 묵었다가 대접을 받고 호랑이를 잡는 데 참여한 다. [호랑이 사냥에 참여]
- (5) 보리밥 장군이 우연히 호랑이를 잡게 된다. [새로운 능력 발휘하는 주인공]
- (6) 호랑이를 잡은 대가로 대접을 잘 받는다. [다른 사람의 인정]
- (7) 다른 곳을 가다가 도둑/가라도치 중 때문에 위험에 처한 집에 머무르게 된다. [새로운 위기로서의 도둑 혹은 가라도치 중]
- (8) 보리밥 장군은 자신의 신체와 피를 이용하여 적을 속이고 적은 그의 힘에 지레 겁을 먹고 도망간다. [적을 속이는 주인공의 꾀]
- (9) 그는 그 집에서 크게 대접 받고 그 이후 잘 먹고 잘 살았다. [성공한 삶]

위의 각편들은 도입부분과 중간부분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유사한 화소를 공유하고 있다. 주인공의 대식성과 힘의 결핍, 주인공의 길 떠남, 속임수를 통한 위기 극복 등의 화소가 공통된 부분이다. 이들은 이 설화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기본적인 화소들로, 이러한 화소들이 조합되고 배치됨에 따라 이야기의 고유성을 확보한다.¹¹⁾

각 단락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단락(1)은 대식 화소가 나타나는 지점이다. 보리밥 장군은 비범한 외모와 남들과는 다른 엄청난 식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주인공의 선천적인 식성은 처음에는 한 되를 먹는 수준에서 차츰 두 되로 늘더니 나중에는 몇 말의 밥을 먹는 것으로 묘사된다. 부모와 마을 사람들은 주인공의 식성과 외모를 보며 마을에 장수감이 나왔다면 크게 기대한다.

11) 각편에 따라 호랑이를 잡는 이야기와 도둑을 잡는 이야기가 모두 들어있거나, 각각 하나씩만 들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는 두 가지 이야기가 각각의 완결된 시퀀스 형태를 갖추고 연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연의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순서가 바뀌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각편 3번 <인각사 장군수와 식통장군>은 힘이 결핍된 대식가가 주인공으로 등장하지만 식성에 의한 갈등이 없고, 탐욕적인 인각사 중들을, 대식을 통해 징치하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다른 각편과는 다소 이질적인 각편이라고 할 수 있다.

단락(2)에서 보면 보리밥 장군의 한계가 나타나면서 주변 사람들의 기대는 곧 좌절된다. 사람들이 식성과 용모를 통해 기대한 것은 그에 걸맞은 '능력'이었으나 그에게는 그럴 만한 힘이 결여되어 있다.

넷날에 한 사람이 있드랬는데 이 사람은 한끼에 보리밥을 두 말이나 먹군 해서 사람덜이 보리밥 장군이라구 불렀다. 이 사람은 몹시 몸이 땡땡하구 배두 땡땡해서 보기에는 힘깨나 써보이는데 사실은 밥 알두 테들디 못하리 만큼 힘이 없었다.¹²⁾

대부분의 각편에서 주인공은 무력자로 나타난다. 보리밥 장군은 식성과 더불어 거대한 용모와 엄청나게 큰 목소리를 가진 것으로 묘사되나 이러한 특성은 무시된 채 오로지 밥 한 알조차 들지 못할 정도로 힘이 없다는 사실만이 부각된다. 이에 따라 그의 식성은 처음의 기대와는 달리 주변 사람들에게 번거롭고 사람들의 해를 끼치는 것으로 인식된다.

단락(3)에서는 주인공이 길을 떠나는 화소가 나타난다. 여기서의 '길 떠남'은 주인공이 '식충이', '집 안을 망하게 할 존재'로 불리며 정주적 공간에서 길 위로 강제로 이동하게 되는 것을 가리킨다. 각편①에서처럼 보리밥 장군이 스스로 떠나는 경우도 있지만, 내부 공간의 인물들이 더 이상 주인공의 대식성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 분리의 이유가 된다는 점에서 각편①도 다른 각편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두 경우 모두 주인공에게 발생하는 '길 떠남'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물리적 힘의 결핍에 따라 대식성이 부정적으로 인식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단락(4)는 보리밥 장군에게 마을 사람들이 '요청'하는 부분이다. 요청은

12) 『한국구전설화』 평안북도편Ⅱ, <보리밥 장군>, (구연자: 김찬건 외), 213쪽. (밑줄은 필자에 의한 것임.)

주인공이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함에 따라 나타난 결과이다. 마을사람들은 주인공의 식성을 보고 그에 걸맞은 음식을 공급하며 호랑이에게 원수 갚는 일을 도와달라고 한다. 주인공이 가진 대식성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특별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보리밥 장군은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마을 사람들이 제공한 음식을 마음껏 먹어치운다. 보리밥 장군에게 제공되는 음식들은 호랑이를 잡아달라는 요청에 의한 것이므로 호랑이를 잡는 일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단락(5)에서는 위기에 처하는 주인공의 모습이 그려진다. 주인공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지만 요청을 호기롭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큰소리를 친 것과 달리 보리밥 장군은 산 속에서 나타난 호랑이를 보고 공포를 느끼며 도망치게 된다. 이때 보리밥 장군은 소리를 지르거나 나무에 올라가 호랑이를 피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통해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호랑이를 잡게 된다. 보리밥 장군이 소리를 지르자 이 목소리에 놀라 호랑이가 제 스스로 나무 사이에 끼어 죽거나¹³⁾ 주인공이 발가벗고 호랑이굴로 찾아가자 호랑이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좋아하다 나무에 걸려 잡히기도 하며, 보리밥 장군이 억지로 소리를 지르려고 애쓰다 나온 화태똥에 인한 똥사태에 떠밀려가 죽는다.¹⁴⁾ 방법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보리밥 장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촉발된 사건에 의해 호랑이가 잡힌다는 공통점이 있다.

단락(6)에서는 보리밥 장군은 나무 사이에 끼거나, 낭떠러지에 떨어진 호랑이를 자신이 잡은 것이라 하여 사람들에게 실제로 ‘장군’으로 인정받는다. 주인공이 육체적 힘을 갖지 못했다는 결핍의 상황 자체는 해결되지 않았으나 우연적인 사건을 자신이 의도한 것이라고 하여 장군으로 불릴

13) 『구비문학대계』 2-4 식충이가 장사되다.(구연자 유만석) 76~89쪽.

14) 『구비문학대계』 2-2 호랑이 잡은 밥장군(구연자 박광철) 687~693쪽.

만한 자격을 얻게 된다.

단락(7)~(9)는 앞의 서사단락이 반복되는 형태로 보인다. 특히 보리밥 장군이 힘센 도둑/가라도치 중 등 새로운 적대자를 물리는 것을 보여준다. 앞서 호랑이를 잡을 때와 같이 보리밥에게 새로운 요청이 발생하여 보리밥 장군은 자신보다 힘이 센 상대와 대치한다. 결국 그를 물리치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으로 끝맺는다.

그런데 단락(8)에서처럼 적대자를 물리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해결 방식을 보여준다. 주인공은 도둑 또는 중을 특정한 도구(몽둥이, 뜨떨매, 장도리 등)로 때리고는 새끼손가락으로 때렸다고 하며 일종의 허장성세를 보인다.

이래 개지구 인삼을 하인에게 지워서 집이루 돌아오는데, 오다가 한아래 울구 있어서 어드래서 너는 울구 있느냐구 물었다. 그 아는 우리 집에 도죽이 돌아와서 우리 재산을 모주리 빼틀구 가디 았구 우리 집에서 자구 있어서 그런다구 말했다. 식통이는 그 말을 듣구 드떨매를 개지구 가서 문턱을 배구 자구 있는 장수도죽놈을 탁 힘껏 내리티구 그매를 얼능 감주구 서있었다. 매를 맞인 장수도죽놈은 깜짝 놀라 눈을 뚜구 니러나서 보느꺼니 원 땡땡하구 키가 큰 장군이 서 있어서 겁이 나는데 “이님! 못된 놈! 네놈이 멀하년 놈이가? 내레 새끼손톱으루 튕졌기에 길디 엄지 손톱으루 튕졌드라문 너는 죽었을거다!” 하구 과됐다. 그러느꺼니 장수도죽놈은 고만 혼이 나서 “예 예 죽을 죄를 쟈입니다. 살레 주시오”하멘 절을 백 번이나 했다. “고롬 네레 이 집이서 쉐 재산을 다 내놓구 가라!” 하구 큰소리루 호령했다. 그러느꺼니 도죽들은 썩소리두 못하구 다 가빠렸다.¹⁵⁾

도둑은 도구에 의해 입은 아픔인줄 모르고 “새끼손가락으로 때렸다”라

15) 『한국구전설화』 평안북도편Ⅱ, <보리밥 장군>, (구연자: 김찬건 외), 214쪽.

는 보리밥장군의 말에 속아 스스로 행복한다. 도둑을 물리친 보리밥 장군은 사람들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는다. 이를 통해 보리밥 장군은 두 차례의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며 뛰어난 능력을 존재로 인정받고 있다. 이후 주인공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것으로 이야기는 결말을 맺는다.

이상의 내용을 순차구조로 정리해 보면 두 가지 흐름(시퀀스: sequence)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시퀀스는 보리밥 장군이 집을 떠나 호랑이를 잡게 되기까지의 과정이며, 두 번째 시퀀스는 보리밥 장군이 도둑을 물리치기까지의 과정이다. 서사단락으로 볼 때, (2)~(6)까지를 첫 번째 시퀀스, (7)~(9)까지를 두 번째 시퀀스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은 보리밥 장군이 호랑이를 잡는 것으로 하나의 서사가 완성되고 있으며 2번째 시퀀스는 1번째의 서사구조가 반복·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다른 각편의 경우 주인공이 적을 물리치는 첫 번째 시퀀스만으로 완결되기도 한다.

**가능성과 결핍이 공존한 삶—[S1: 문제발생—길 떠남—1차 위기—위
기극복]—[S2: 2차 위기—위기 극복]—성공한 삶**

이 설화는 순차구조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특수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으나 동시에 결핍을 갖고 있는 주인공이 일련의 위기와 극복의 과정을 거쳐 성공한 삶으로 나아가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이러한 상승적 구조가 대식/힘의 결핍이라는 주요한 화소를 통해 매개된다는 사실이다. 요컨대 서로 대립되는 두 화소가 공존하는 가운데 이러한 불일치를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이 설화의 주요한 화두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다음 장에서는 이 설화 속에서 대식과 힘의 결핍이라는

화소를 통해 주인공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성공한 삶을 이뤄낼 수 있었는지를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3. 탐식과 의존의 문제로 살펴본 대식과 힘의 결핍 화소

앞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설화에서 대식은 특별한 화소로 주목할 만하다. 그런데 다른 설화 속에서도 이와 같은 대식성을 가진 인물들이 여럿 등장한다. 특히 이들은 신화나 전설의 영역에서 그 모습을 쉽게 드러낸다. 그 중에서 '거인설화'는 대식성을 가진 인물들이 등장하는 대표적인 설화라 할 수 있다.

거인설화에서 대식성은 거인의 거대함을 강조하기 위한 특성으로 대의(大衣), 거근(去根), 많은 양의 배설(排泄), 거인 흔적남기기 등¹⁶⁾의 화소와 함께 배치된다. 이러한 거인 설화의 화소는 <설문대할망>, <장길손> 등과 같은 대표적인 거인설화에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함경도의 서사무가인 <창세가>의 미륵 역시 곡식을 '말들이 섬들이'로 먹는다는 점에서 이러한 맥락에 읽을 수 있다.

미륵님세월歲月에는, 생火食을잡사시와
불안이넛코, 생나달을잡수시와
미륵님은섬두리로잡수시와
말두리로잡숫고, 이례서는못할너라¹⁷⁾

<창세가>의 미륵은 하늘과 땅을 갈라 세상을 여는 창세신이며, 설문대

16) 권태효(1997), 앞의 논문, 51쪽.

17) 손진태 편저·김종균 외 주해, 『조선신가유편』, 박이정, 2012, 19~20쪽.

할망 역시 제주도의 지형을 창조하는 신으로 역할을 한다. 이들은 창세신으로서의 면모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대식 역시 하나의 신적 능력으로 볼 여지가 있다.¹⁸⁾ 곧 세상을 창조하거나 지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막강한 힘이 필요한데, 이러한 힘의 원천에는 엄청난 식성이 바탕이 된다는 생각이다. 이 밖에도 대식성을 가진 인물로 <세경본풀이>의 정수남, 제주도 전설 속의 막산이 등이 있다. 이러한 인물들은 여지없이 대식성과 관련된 힘 또는 특정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듯 신화나 전설 속 인물의 대식이 신성한 또는 특정한 능력을 의미하는 것은 식욕이 가진 원형적 상징 때문으로 보인다. 식욕은 육체를 만족시키는 대표적인 물질적 욕망이다. 이러한 욕망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무한한 만족을 추구하는 데 있다. 욕망은 유기체를 파괴하지 않는 이상 소멸되지 않으며 충족이 불가능한 인간의 근본적인 추동력으로 이해된다. 이는 욕망으로부터 활력이 발생한다는 것으로, 거인설화에서 인물이 가진 창조력과 생명력은 대식의 욕망이 가진 의미와 관련이 있다. 이처럼 대식이 특별한 존재들이 가진 능력을 상징하는 것은 관습적인 사유라고 할 수 있다.¹⁹⁾

<보리밥 장군> 역시 대식에 대한 보편적인 사유를 공유하고 있다. 다만 보리밥 장군의 대식은 신화 속의 창조 능력이나 신성한 힘과는 달리 물리적인 힘 그 자체와 관련이 있다. 신화에서 민담이 파생되어 나온 것

18) 권태효(1997), 앞의 논문, 56쪽.

19) 이와 관련하여 김난주는 심리학적 관점에서 창세신인 미륵님과 봉향당본풀이의 일되도에 주목하여 대식성을 의식 초기 단계에서 의식이 자기정립을 위한 역동적 활동이라고 보았다. 음식물을 먹는 행위는 타자(음식)를 주체가 먹어 소화시킴으로써 나의 것(피와 살)으로 만드는 행위(assimilate)이다. 이는 타자로서 존재하는 무의식의 내용들을 점차 의식계 속으로 끌어들여, 나의 것으로 의식화하는 의식의 행위가 음식물의 섭취로 표현된 것이다.(김난주, 『한국창조신화의 분석심리학적 해석』,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으로 보는 시각에 따르자면, 신화의 대식이 민담의 화소 자리하면서 향유 자들에 의해 대식의 신성한 속성은 탈락하고 대식은 곧 힘셈이라는 의미로 단일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신화적 존재들의 생산력이나 신성함이 물리적 힘으로 단순화되고 있지만 대식에 대해 다른 사람과는 다른 '특별함'을 기대하는 것은 대식이 가진 관습적인 사유로부터 이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보리밥장군의 식성을 보면서 '집안에 장사가 나는 모양이다'²⁰⁾라고 부모가 말하는 부분에서 대식과 장수에 대한 기대감이 동기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보리밥장군에게서 대식성에도 불구하고 '힘의 결핍' 화소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보리밥 장군이 대식성을 가진 다른 존재들과 차별되는 특수한 지점이 여기에 있다. 보리밥 장군의 '힘 결핍'은 설화 밖에서 이야기를 접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질문을 떠올리게 한다.

“보리밥 장군은 어째서 능력을 가정하는 대식 화소를 가졌음에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가?”

그렇지만 이것만으로는 이 설화의 핵심을 모두 반영하기 어렵다. 앞서 살펴본 순차구조에서처럼 보리밥 장군은 몇 번의 위기를 극복하여 성공을 이뤘다. 특히 단락(5)와 단락(9)에서 보듯이 아무런 힘이 없는 주인공이 호랑이와 도둑을 물리치는 장면에서 '힘이 없음에도 과연 어떻게 그러한 일을 해낼 수 있었는가' 하는 의문이 들게 한다. 설화의 일반구조가 '문제의 발생→문제의 해결'이라는 큰 구조, 다시 말해 갈등의 발생과 해소의 과정²¹⁾이라고 볼 때 이 설화에 관한 핵심적인 '요점'²²⁾은 다음과 같

20) 『구비문학대계』 2-4 식층이가 장사되다.(구연자 유만석) 76~89쪽.

이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대식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주인공이 어떻게 호랑이/도둑과 같은 무서운 적을 물리칠 수 있는가?”

위와 같은 화두에 대하여 기존의 논의에서는 장르적인 특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이 설화가 민담적 특성으로 인해 위와 같은 서사가 이어진다는 것이다. 주인공의 힘의 결핍은 신, 영웅, 거인 등을 대상을 하는 신화·전설이 민담화되는 과정에서 주인공의 신분·능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그럼에도 주인공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민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낙관적 세계관에 의한 것이라는 설명이다.²³⁾ 물론 <보리밥장군>설화가 대식이라는 화소를 통해 ‘거인설화’의 계보 속에 있으며 민담이 다른 설화 장르에 반해 주인공의 성공 및 승리를 맺는 낙관론적 세계를 반영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문제를 지나치게 장르의 문제로 환원시킨다는 한계가 있다. 이 설화가 그 자체로 ‘전완성’을 가진 이야기라고 한다면 설화 자체의 화소와 구조의 관계 속에서 앞의 화두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식 화소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자. 이 설화에서 대식은 처음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가 주인공의 결핍이 드러나자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에는 ‘(+) $\text{대식}=(+)\text{힘}$ ’

21) 오세정, 『한국 설화에 나타난 폭력의 형상화와 의미화에 관한 연구』, 『기호학연구』 38집, 기호학회, 165쪽.

22) 프랭스는 서사물에서 요점이 있을 때만 관심과 맥락적 의미가 살아나며, 요점은 서사물의 필수조건이라고 말한다. (프랭스 지음·최상규 옮김, 『서사학이란 무엇인가-서사물의 형식과 기능』, 예림기획, 1999, 244~247쪽.)

23) 김영경(1990), 앞의 논문, 75~80쪽.

이라는 사람들의 기대감이 '(+)대식=(-)힘'이라는 결과로 인해 좌절되면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대식이 상징하는 창조력, 생명력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긍정적으로 인식되는 것은 아니다. 음식에 대한 욕구를 내포하는 대식성은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일례로 금욕이 강조됐던 근대 이전의 서구사회에서는 '대식'은 7종죄에 속하는 탐식(gluttony)의 영역에서 다루어져 지탄받아야할 본성으로 여겨졌다. 어째서 개인의 배를 채우는 행위에 불과한 '대식'이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것일까? 이는 대식이 오직 자아와 관련된 개인의 문제로 보이지만 음식의 유한함처럼 한계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식성 자체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한 결점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곧 대식은 음식의 공급자와 수혜자 사이의 관계성을 전제한다.²⁴⁾ 그러므로 통제되지 않는 식성은 그것만으로 무책임하고 위협적일 수 있다.

이러한 대식의 양가적 속성은 서사무가 <퀘네깃당 본풀이>의 퀘네깃또의 면모에서 잘 드러난다. 퀘네깃또의 대식성은 용왕왕에 의해 구해진 뒤, 그에게 대접받는 대목에서 나타나는데 퀘네깃또는 날마다 소와 돼지를 해치우며 용왕국의 창고를 비워버리며 남들과는 다른 비범한 대식성을 자랑한다.

“조선국 장수님아, 뭇을 잡수십니까?”

“내 국은 속국이라도 돼지도 전마리를 먹고, 소도 전마리를 먹는다.”

24) 물론 '다른 인간'을 대상으로 삼는 성욕과 달리 식욕은 '음식물'을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욕구충족의 관계항'이 분명하지 않을 수 있다. (이정은, 『사람은 왜 인정받고 싶어하나』, 살림, 2008, 19쪽) 그러나 식욕 역시 '음식물'을 매개로 하여 타인과 관계를 맺는다. 제한된 공급이란 상황 속에서 나의 욕구는 타인에 의해 수용되어야지만 욕구가 실현될 수 있다.

아버님께 여쭙니, 용왕국대왕이 말씀하시되,
“내 기구를 갖고서 사위손 하나 못 대접하겠느냐?
날마다 돼지를 잡고 소를 잡아가니 동창고 서창고가 다 비어간다. 용왕국
이 생각하니 사위손을 두었다가 용왕국이 망할 듯합니다.
“여자라 한 것은 출가의인이니 남편을 따라 나가거라.”
그 사이에 유태가 되었는데 남매같이 두 사람을 무쇠석갑에 들여놓아 물
바깥으로 내뱉는다.²⁵⁾

퀘네깃또의 식성에 맞추다보니 나라의 창고가 비어 용왕국은 망할 것
같은 상황이 된다. 결국 퀘네깃또는 임신한 아내와 함께 무쇠석갑에 넣어
져 물 바깥으로 버림받는다. 문제는 퀘네깃또가 용궁왕의 대접에 걸맞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퀘네깃또는 ‘강남천제국의 국난이 님젠 헉
근데 세벤(世變) 막으레가단 풍파(風波)에 쫓겨서 용왕국을 들어 왔습네
다.’²⁶⁾라고 대답하며 용궁왕의 마음에 들지만 용왕궁에 머무르며 하는 일
은 그저 용궁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게걸스럽게 먹는 것밖에는 없었다. 퀘
네깃또는 누군가 제공하는 구순적인 만족에 의존하는 것으로 인해 자신
의 식성이 용왕국에 어떤 혼란을 주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이때의 퀘네
깃또의 모습에서 처음 용궁왕을 만날 때와는 다른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만족을 느끼며 안주하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사실 퀘네깃또의 버려짐은 처음이 아니었는데 퀘네깃또는 ‘아버지의
수염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두드’²⁷⁾렸다는 이유로 무쇠옥갑에 태워져 버
려진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서의 버려짐은 퀘네깃또가 어리광을 부

25) 현용준·현승완 역주, 『한국고전문학전집29 제주도 무가』, 고려대학교 민속문화연구소, 1996, 325쪽.

26) 현용준·현승완 역주(1996), 같은 책, 325쪽.

27) 현용준·현승완 역주(1996), 같은 책, 321쪽.

리를 행위를, 부모에 대한 의존에 의한 현상으로, 아울러 어머니의 품속에 영원히 남아있기 원하는 아이의 심리를 일찌감치 분열시키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²⁸⁾ 이러한 맥락에서 케네깃또의 대식은 한 번 버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군가에게 의존하여 자신의 식욕을 채우는 지경에 머무르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케네깃또당본풀이>의 대식 화소는 대식의 주체인 케네깃또와 음식을 제공하는 용궁왕 사이의 관계를 주요한 화두로서 제시하고 있다.

<보리밥 장군>의 주인공과 부모의 관계는 <케네깃또당본풀이>의 케네깃또와 용궁왕의 관계와 유사하다. 용궁왕이 음식의 제공자로 표상되었듯 <보리밥 장군>에서는 부모가 그러한 역할을 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주인공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사람이 부모라는 사실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자식을 양육하는 일과 관련이 있다. 부모가 음식을 공급하는 것은 양육과정에서 '장군감'과 같은 성장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인공은 부모가 제공하는 음식을 통해 '구순적 탐식'을 만족시킨다. 구순적 탐식이란 부모의 기대와는 달리 성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부모에게만 의존하려고만 하는 욕망을 말한다. 그 결과 주인공은 부모로부터의 공급이 계속될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고, 영원토록 부모에게 공생하고 의지하여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음식을 제공받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게 된다.

보리밥 장군은 대부분의 각편에서 처음부터 대식성과 함께 남다른 목소리와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것으로 묘사된다.²⁹⁾ 목소리와 육체는 보리

28) 김미숙, 『입사식 원형으로서의 버림/버려짐 모티프와 상사 모티프—<케네깃또당본풀이>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28집, 한국구비문학회, 29쪽.

29) 그런데 이놈이 밥은 많이 먹는데, 기운은 못쓰지만 어마굴량이 대단하다 이거야. 응. 밥을 잘 먹고 글 잘하니깐. 뭘 말소리도 방안이 왕왕하고 기운은 개빨두 없지만 아주 어마굴량이 커노니깐 말야. 말소리도 크고 아주 굉장하다. 걸 자라나서. 응 우풀이

밥 장군이 가지고 있는 남다른 가능성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보리밥 장군의 모습은 부모에 대한 의존으로 인하여 자신의 가능성마저 발휘하지 못하는 퇴행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요컨대 ‘힘의 결핍’이란 의존적인 구순의 만족으로 인해 ‘개인성’과 ‘독립성’을 상실한 주인공의 모습을 상징한다.

계다가 속성상 음식은 한정된 재화이기 때문에 대식의 욕망으로 인해 파괴되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다. 남다른 존재로 성장할 것이라는 특별한 기대를 가지고 양육하던 부모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무한히 음식을 공급해서는 ‘집안을 망칠 수밖에’ 없게 된다. 결국 제대로 된 독립의 통과의례를 거치지 못한 주인공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 주변까지도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 부모가 주인공이 가진 식욕이 집안을 망칠 것이라며 주인공을 내쫓는 데³⁰⁾는 바로 이러한 이유가 있다.

4. ‘집 떠남’과 ‘반복구조’를 통한 자아실현과 가능성의 확장

4.1. ‘길 떠남’을 통한 대식의 충족과 자아실현

부모마저 감당할 수 없는 대식으로 인해 집에서 쫓겨난 주인공은 어떻게 되었을까? 순차구조에서처럼 보리밥 장군이 커다란 덩치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자 부모는 그를 ‘식충’이라 부르며 집에 쫓아낸다. 그러나 주인공은 오히려 이를 계기로 호랑이, 도둑 등을 물리치며 성

아주 대단해. (『구비문학대계』 2-2 호랑이 잡은 밥장군(구연자 박광철) 687쪽.)

30) 아 이놈이 밥두 어떻게 많이 먹는지 두 늙은이 벌어 맥이질 못하겠다. 이거야. 어떻게 많이 먹는지. “에이, 이놈의 새끼. 나가거라. 이놈의 새끼. 너, 인제 늙어서 인제 기운 두 없구 못 벌어 먹이겠다.” 내쫓았던 말이야. (『구비문학대계』 2-2 호랑이 잡은 밥장군(구연자 박광철) 687쪽.)

공한 삶을 이뤄낸다. 자의에 의해 집과 가족들을 떠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주인공은 전환의 기회를 맞이한다.

이러한 전환에 있어 중요한 것이 '길 떠남' 화소이다. 길 떠남은 공간 이동을 통해 발생하는 변화를 말한다. 설화 속에서 보리밥 장군은 부모가 있던 집을 떠나고 길을 통해 새로운 마을로 들어간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집'에서 '새 마을'로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길을 떠나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낯선 세상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주인공이 겪게 될 세계의 질서가 바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인공은 집을 떠나 더 넓은 공간으로 나아가게 되면서 부모에 의해 제 공받던 음식을 더 이상 제공받을 수 없게 된다. 그에 따라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결핍을 겪게 된다. 그러나 결핍의 상황이 주인공의 대식의 욕망을 통제하거나 제거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보리밥 장군의 식욕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으며 마을 사람들에게 특별한 것으로 받아드려지기도 한다. 그리고 새로운 마을의 사람들이 그에게 음식을 제공하면서 음식의 결핍은 극복된다.

“주인 양반 계십니까?”

하니 그 집에서는 그 집의 대감이 이렇게 내다보니 모습은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눈이 헛드라이트 모양 생겼겠다 아주 깍짓동([주]몹시 똥똥한 사람의 몸집을 비유하는 말. 원래는 콩이나 팥의 깍지를 많이 묶어 세운 동.) 같이 이렇게 건장한 사람이 그러니깐 아주 장사가 온 줄 알고 천해 장사가 온 줄 알고

“네, 지가 대감입니다.”

땀발로 마루를 나오면서 얘기하거든. 그래,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시장끼가 있으니 그래 찾아 들어 왔습니다.”

“아이고 이리 들어오십시오.”

그래 방에 모셔 가지고 인제 대감이 들여 모셔 가지고 사람을,

“그래 대관절 산에는 웬 사람이 저렇게 기어 올랐소?”

“네, 그러잖아도 지금으로부터 몇 백년쯤 묵은 호랭이가 대낮에 와서 이 부락에 사람 하나씩 잡아다가 먹습니다. 그래 인제 매일 한 명씩 잡아다 먹는데 오늘 역시도 그래 가지고 그래 각지에서 인제 명포수들을 주문을 하다가 저 몰잇군이 올시다.”

“아, 그러시오?”

그런 얘기를 주고 받는데 대감이 있다 하는 말이 ‘여봐라’ 하니까 그 몸종이,

“네.”

“그 밥 한 상 해 와라.”

“네.”

하고 간단 말이야. 이 식충이가 있다가

“저는 밥을 안되미 고봉 쌀 한 말을 내가 한 끼에 다 먹는 사람시오”

그러니까 대감이 다시,

“여봐라.”

하고 부르니,

“네.”

하고 몸종이 와요.

“그 쌀 안되미 한 말 퍼다가 밥 한 상 해 와라.”

“네.”³¹⁾

더 이상 보리밥 장군의 식욕을 감당할 수 없었던 부모를 떠나 새로운 마을에 이르게 된 보리밥 장군은 또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 받는다. 길 떠남은 계속해서 음식을 제공받겠다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결핍을 발생시키는 동시에 보리밥 장군의 식욕을 채울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

31) 『구비문화대계』 2-4 식충이가 장사되다.(구연자 유만석), 76~89쪽.

이렇듯 음식을 매개로한 공급자와 수혜자의 관계가 형성되는 듯 보인다. 누군가가 제공하는 음식을 통해 자신의 결핍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보리밥 장군과 마을 사람들의 관계는 앞서 보았던 부모와의 관계와 유사해 보인다. 자신의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 여전히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을 사람의 음식은 선의(善意)에 의한 것도 아니고 무한정으로 제공되는 것도 아니다. 마을 사람은 '호식당할 위기'라는 문제를 안고 있고, 남다른 외모를 지닌 보리밥 장군에게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면서 음식을 제공한다. 그러한 점에서 이들의 관계는 음식을 매개로 하여 일종의 '계약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관계는 일방적으로 음식의 수혜를 받던 부모와의 관계와는 전혀 다르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곧 대식 욕구는 주인공이 다른 사람과의 상호적인 관계를 맺어야 할 당위를 부여한다. 그러한 점에서 새로운 마을 사람은 주인공이 맞닥뜨려야 하는 사회적 관계를 의미한다. 사회는 더 이상 무한정으로 먹을 것을 가져다주는 공간이 아니며, 그 대신 일정한 사회적 역할을 기대한다. 대식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역할에 부응해야 하며 이를 수행할 때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주인공이 구순적 탐식에서 벗어나 성장하는 데 기여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여 '길 떠남'에 의한 공간의 대립항을 도식화해보면 다음과 같다.³²⁾

32) 신동훈에 따르면, 순차구조가 종적이고 계기적이라면 대립구조는 횡적이고 층위적이다. 둘이 서로 결합함으로써 설화의 구조와 의미는 다층적 입체성을 갖게 된다. 순차구조는 대립항들을 통해 의미적으로 확장되며, 대립항들은 순차구조를 매개로 상호연계되는 가운데 구조적 층위를 이룬다. (신동훈, 『스토리텔링 원론: 옛이야기로 보는 진짜 스토리의 코드』, 아카넷, 2018, 180쪽.) '길 떠남'이라는 화소가 어떤 대립항을 만들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그 화소가 상징적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지를 효과적

집 :	부모	가정	혈연	머무름	타의
새 마을:	마을 사람	사회	계약	음직임	자의

이러한 과정에서 주인공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다. 사람들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이를 수행함으로써 제대로 된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과 이를 거부함으로써 ‘존재의 초기에 누리던 “천상적인(heavenly)” 것으로의 퇴행³³⁾’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인공은 아무 것도 하지 않던 집안에 서와는 달리 사람들이 요청한 ‘호랑이 사냥’을 흔쾌히 받아들인다.

인제, 저는 대감이 생각하기에는 장사로 생각했는데, 지가 힘은 하나도 없는데 밥 만 많이 먹는 식층이 새긴데, 그러니 지가 한 번 덩치 값을 할라고 우쭐해 불려고,

“대감, 여보시오.” / “네”

그러잖아.

“저 호랑이가 어디 있는지 가르쳐 줄 수 있소?” /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가르쳐 드리지요. 여봐라!”

하니까, 몸종이,

“네”

“이분 저 호랑이 목 좀 가르쳐 드려라.”

“네, 저를 따라 오시지요.

(중략)

그래 인제 그리고 내려 갔어. 몸종은 그러니 앉았다가 풀밭에 이렇게 기대고 앉아 가지고, 풀에 짝 파묻히지, 암만 커도 풀이 이렇게 왕성하니까, 그 가만 들으니까 가까이 오는지 호랑이 올라 오는 소리가 나는데,

으로 확인할 수 있다.

33) 브루노 베텔하임, 『옛이야기의 매력』 1, 시공주니어, 2001, 270쪽.

“흥 흥 흥”

그러면서 소리가 나거든, 그래 나중에 곁에 와서 웅웅 하니까 깜짝 놀랬어. 아주, 깜짝 놀래서 식충이가 까물어치느라고 드러 누울 때 가만히 드러 누워 까무러치면 좋은데, 이게 소리를 벽력같이 지르면서 별떡 일어나면서 냅다, 별떡 일어나면서 소리를 냅다 지르면서 까무러쳤단 말이야.”³⁴⁾

마을 사람은 호랑이에게 원수를 갚거나, 호환을 피하기 위해 호랑이를 잡아달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직접 호랑이를 물리치거나 호랑이를 잡을 때 앞에서 소리를 질러달라고 한다. 보리밥 장군은 약속대로 사람들을 따라 호랑이를 잡으러 나서지만 사람들에게 호연장담했던 것과는 달리 호랑이를 마주하게 되자 오히려 겁에 질려 버리고 만다.

호랑이를 마주한 주인공은 기절하든가, 겁에 질려 나무 위로 숨어버린다. 주인공에게 소리를 질러달라고 하는 각편의 경우에도 곧장 소리를 지르지 못하고 몇 번이고 주저한다. 호랑이는 주인공이 맞닥뜨려야 하는 사회적 역할임과 동시에 의존적 관계에서 벗어나 세상을 직면하고 독자적인 존재로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보여주는 현실원칙의 신호이다. 호랑이의 폭력적인 속성은 주인공이 아직 자신의 능력을 완전히 발현하지 못하는 단계에서 마주치는 미지의 공포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곧 아직 완전히 의존적인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아가 현실과 부딪힐 때 겪게 되는 공포와 불안이며, 이는 성장을 방해하며 의존적인 존재로 다시 퇴행하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

그러나 공포와 불안을 극복하는 것은 온전히 본인의 힘에 의한 것이어야만 한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목소리’의 상징성이다. 주인공은 태어날 때부터 큰 목소리를 가지고 태어난 것으로 묘사된다. 이런 목소리는

34) 『구비문학대계』 2-4 식충이가 장사되다.(구연자 유만석) 76~89쪽.

처음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었으나, 주인공이 겪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발현됨으로써 주인공이 위기를 극복하게 해준다, 그런데 목소리는 다름 아닌 주인공의 내부에서 밖으로 터져 나오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징적이다. 목소리는 두렵더라도 이를 회피하지 않고 맞닥뜨렸을 때만이 발현되는 내재된 힘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이런 목소리가 발현됨으로써 공포와 불안을 상징하는 호랑이는 제 스스로 떨어죽는다.

인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얼마쯤 이 사람이 까무러쳤다가 나중에 일어나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호랭이가 넘어 와서 정신을 잃고 까무러쳤었구나. 그 호랭이가 갔겠는데 어디 넘겨다 본다.”고 가서 넘겨다보니 이제 능선이 칼등같은 좁은 능선인데 그래 거기서 인제 호랭이가 올라 오면서 ‘어흥, 하나까 별안간 그냥 깎짓동 같은 게

어디 풀 속에서 보이지 않던 게 별안간 별떡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니 호랭이도 또 까무러치다시피 놀래 가지고 말야 그냥 공중으로 칼등같은 능선으로 넘겨 쳐서 내려 떨어뜨린다는 게 바로 가서 떨어지는 게 잘못 떨어져서 이 나무 새간 굽다란 나무 새간에 척 끼어 가지고 이 가는 허리가 끼어서 꼼짝을 못하고 거기 끼어져 있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으렁 으렁’ 하고 나무에 끼어져서 그러고 있으니 그제서 아주 그냥 천지가 지 세상 모양으로 천에 장사 역할을 하고 지가 우쭐해 가지구서 내려오는 거야.

호랑이를 잡고 나서 보리밥 장군이 하는 행동 역시 흥미롭다. 범을 어떻게 잡았느냐는 질문에 보리밥 장군은 “범을 잡아 빙빙 돌려 던졌다”느니 “나무에 메다꽃았다”느니 하면서 자신의 힘을 통해 잡았다고 말한다. 허풍을 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이 이룬 최초의 성공에 대한 자신감과 자기 신뢰를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실제

로 보리밥 장군은 사람들에게 진짜 장군으로 인정받는다.

이처럼 호랑이를 잡는 경험을 통해 주인공이 얻은 것은 새로운 독립성과 수동적 의존과는 반대되는 자기 신뢰라고 할 수 있다. 성장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수혜를 받는 관계로부터의 상징적인 결별이 필요하다. 길 떠남과 호랑이와의 대결은 대식의 욕구를 스스로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이를 통해서 집안의 울타리에서 발휘될 수 없었던 스스로의 힘을 발견한다. 요컨대, 주인공의 '길 떠남' 화소는 의존적이고 파괴적인 구순고착을 상징하는 '힘의 결핍'을 극복하고 공포와 불안을 맞닥뜨리면서 자기 스스로의 힘을 발견해나가는 주인공의 성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³⁵⁾

4.2. 반복구조를 통한 기능성의 확장

지금까지 대식과 힘의 결핍으로 나타나는 '구순적 탐식'이 길 떠남과 호랑이 사냥을 통해 극복되고 주인공이 하나의 자아로서 성장하는 과정

35) 다른 한편, 주인공이 제2의 길, 즉 온전한 독립과 분리의 과정을 겪지 못했을 경우는 어떨지 의문이 생긴다. 이와 관련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막산'으로 대표되는 제주도의 거인전설이다. 막산이는 대식성과 함께 50인분의 일을 거뜬히 해낼 수 있는 능력이 가졌지만 막산은 종의 신분으로서 강침에 종속된 존재이다. 강침에서는 막산의 대식성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를 외부의 세계(집 밖)으로 추방하게 된다. 쫓겨난 막산이는 결국 다른 이들의 말과 소를 잡아먹는데 다른 이들에게 징치되어 죽음을 맞이한다. 영웅적인 능력을 보이는 막산의 좌절은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대식성을 가지고도 성공하는 민담형 인물들과 막산이 구별되는 한 가지 지점이 존재한다. 종속적이지만 안락했던 세계에서 추방된 인물들이 자신의 결핍을 해소할 장소를 스스로 찾아내고 있느냐의 문제이다. 막산이는 계속해서 강침에서 머물 수 없으므로 자신의 결핍을 해소할만한 새로운 장소를 탐색해야만 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막산은 제주섬으로 상징되는 한정된 영역에서 머물며, 다른 누군가의 것을 훔쳐 먹다가 결국 징치된다. 이는 대식성을 가지고도 성공하는 인물들이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것과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지점이 있다. 보리밥 장군이 ‘장군’으로서 인정받으며 성공한 삶을 이뤄냈다고 할 때, 어찌서 또다시 [문제-위기-해결]이 반복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는 순차구조로 통해 살펴볼 때 두 번째 시퀀스(S2)에 해당하는 지점으로, 구체적으로 보리밥 장군이 또 다른 집으로 가서 음식을 대접 받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도둑을 물리치는 대목이다. 물론 각편에 따라 호랑이를 잡는 사건이 없이 도둑을 잡는 사건만 제시되거나 사건이 누락되는 경우, 앞의 사건과 순서가 바뀌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아래의 인용처럼 ‘호랑이 사냥’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도둑의 등장과 이를 해결하는 과정이 뒤에 이어지는 각편들이 존재한다.

이즉만해서 통장군은 털간에 와서 가라도치중놈이 지는 걸 부구 도꾸 등으로 그놈에 니마빠기를 각 티구 얼릉 도꾸를 감좌 두구 세 있었다. 중이 놀라서 눈을 뜨는데 통장군은 “내레 새끼손가락으루 텅겼기 길디 주먹으루 텃테라먼 네놈은 죽었겠다”구 말했다. 가라도치중놈은 이 말을 듣구 고만에 놀라서 다라뻘서 도망갔는데 그 후보타는 다시 이 털간에 오디 안했다구 한다.³⁶⁾

이러한 사건들은 하나의 짧은 삽화처럼 보이기도 하나, 사건의 반복을 통해 또 다른 의미를 전달하는 지점이라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다. 도둑 퇴치는 앞서 호랑이를 사냥하는 화소와 유사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두 화소 사이의 대립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36) 『한국고전선화』 평안북도편Ⅱ <통장군> (구연자 김치제), 216쪽.

호랑이:	동물	미지	야생	목소리	본능
도둑 :	인간	인지	문명	속임수	지능

도둑은 호랑이와 마찬가지로 주인공이 수행해야하는 과업인 동시에 실제적인 위기로 다가온다. 왜냐하면 주인공이 앞선 사건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도 대식 욕구와 물리적 힘의 결핍은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인공이 또 다른 집으로 가 음식을 제공받는 것은 그의 식욕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대식 욕구가 무한히 반복되는 한 그는 음식을 제공받는 대신에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반복해서 치러야만 한다. 이에 도둑퇴치가 끝난 이후에도 이러한 과정이 무한히 반복될 수밖에 없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런데 도둑을 대하는 보리밥 장군의 태도에는 이전과 같은 어떠한 불안과 공포가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위기 상황을 수용하고 통제하는 자세를 보여준다.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것이 '호랑이-동물-미지: 도둑-인간-인지'라는 대립항이다. 호랑이는 수성(獸性)적 존재로 알 수 없는 것, 미지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주인공이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만들기 충분하다. 이에 반해 도둑은 주인공과 같은 '인간'이며, 이미 알고 있는 것, 인지할 수 있는 존재로써 상징된다. 이에 따라 도둑은 주인공에게 더 이상 불안이나 공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미지→인지'로의 변화에는 호랑이 사냥의 경험을 통한 성장이 있었음은 당연하다. 주인공은 지적인 계획을 세우고 행동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호랑이 사냥에서의 발휘된 목소리의 힘이 위기 상황에서 발휘된 우연적이고 본능적인 힘이라면 도둑을 잡을 때 사용한 방법은 '속임수'라고 할 수 있다. 속임수는 상대를 속인다는 점

에서 부정적 방법처럼 보이지만 지적인 판단에 기반을 둔 목표지향적 행동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는 본능으로서의 힘과 대비되는 인지·지혜로써의 힘을 상징한다.

속임수의 양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보리밥 장군은 도둑을 몽둥이, 망치와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때린다. 도둑은 보리밥 장군의 공격을 받고는 그를 두려워하게 된다. 그러나 도둑이 보리밥 장군을 두려워하게 된 것은 단 한 번의 공격 때문이 아니라 보리밥 장군이 던진 말 때문이었다. 보리밥 장군은 “새끼손가락으로 통겼기 때문이지 주먹으로 때렸으면 도둑이 벌써 죽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 말은 “엄청난 힘이 숨겨져 있으니 덤빌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다. 보리밥 장군에게는 그럴 만한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둑은 그 말을 믿고 보리밥 장군을 두려워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보리밥 장군 말에 속아 넘어가는 도둑의 어리숙함에 의해 발생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리밥 장군의 지적인 계획과 행동에 따른 결과이다.

속임수를 써서 도둑을 물리쳤다는 점에서 보리밥 장군은 지적인 힘을 가진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도둑이 보리밥 장군에게 굴복한 것은 그가 자신을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착각에 의한 것이었다. 곧 도둑은 보리밥 장군을 힘을 가진 인물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착각을 일으킨 것은 보리밥 장군이다. 무력자로 나타나는 보리밥 장군은 힘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지만 지혜를 통해 최초의 문제, 힘의 결핍이라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두 번째 시퀀스에 나타나는 [문제-위기-극복]의 반복은 결코 사족과 같은 것이 아니다. 식욕 충족과 보답의 상호관계가 무한히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동시에, 자신의 지략과 목표지향적 행동을 통하여 한걸음 더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반복의 구조는 의존을 극복하고 개인성과 독립성을 확보한 주인공이 자신의 가능성을 어떻게 확장시켜 나가는지를 보여준다.

5. 나가며

<보리밭 장군> 설화는 우리 설화의 원형적인 화소인 '대식'이 핵심적인 화소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설화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 설화는 거인설화의 영향 관계 안에서만 논의되었다. 본 연구는 이 설화를 전 완성을 갖춘 독립된 설화로 보고 화소가 가진 의미적 개방성과 다의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해 보고자 하였다.

그에 따라 대식이 힘이나 특정한 능력을 전제하는 보편적인 사유와 달리 이 설화에서는 대식과 힘의 결핍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 설화의 이러한 특별함을 중심에 놓고 설화를 살펴본 결과, 부모의 세계에 의존하여 그것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 착각에 빠져 개인성과 독립성을 잃어버린 결과가 '힘 결핍' 화소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대식적 욕망과 힘 결핍의 화소가 서로 공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길 떠남' 화소를 통해 주인공이 의존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서 구순기적 욕망을 극복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길 떠남은 다시 '호랑이 사냥' 화소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 이를 통해 호랑이가 분리과정에서 오는 공포와 불안을 의미하며 이러한 공포와 불안을 직접 대면할 때만이 진정한 성장에 이를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장군으로 불리는 주인공의 모습에서 독립과 성장의 면모를 확인하였다.

한편, 반복되는 [문제-위기-극복]의 과정을 통해서 주인공은 내재된 가

능성을 한층 확장해가고 있다. 자칫 놓치기 쉬운 구조와 화소를 통해 주인공이 최종적으로 다다르게 되는 성장의 지점이 어디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보리밥 장군>의 대식은 주변부의 다른 화소들과 결합, 확장되면서 ‘안온하지만 퇴행적 세계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나가는 과정에서의 불안과 공포를 극복하고 주체의 성장을 이룩할 것인가?’라는 화두를 던지고 있다. 이와 같은 화두는 단순히 과거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날에도 유효한 화두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익숙한 화소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어떤 시각에서 어떤 것과 연관 지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설화는 여전히 유효한 화두를 우리에게 던져준다. 설화해석에서 서사구조와 화소의 연관관계를 고려하는 서사원리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참고문헌

-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평안북도편Ⅱ, 평민사, 1994.
- 『한국구비문학대계』 2-2, 한국학중앙연구원, 1981.
- 『한국구비문학대계』 2-4, 한국학중앙연구원, 1981.
- 『한국구비문학대계』 7-12, 한국학중앙연구원, 1984.
- 『한국구비문학대계』 7-16, 한국학중앙연구원, 1988.
- 권태호, 「거인설화의 전승양상과 변이유형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1~261쪽.
- 김난주, 「한국창조신화의 분석심리학적 해석」,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1~223쪽.
- 김미숙, 「입사식 원형으로서의 버림/버려짐 모티프와 상자 모티프— <케네깃당본 풀이>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28집, 한국구비문학회, 23~46쪽.
- 김영경, 「거인형 설화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1~99쪽.
- 김정은, 「물명당 유인 설화의 단두(斷頭)와 재생(再生) 화소를 통해 본 발복(發福)의 의미 연구」, 『겨레어문학』 57집, 겨레어문학회, 2016, 59~86쪽.
- 김현선, 「제주도 돛제와 케네깃당 본풀이 연구」, 『탐라문화』, 31권 31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7, 109~173쪽.
- 박종국, 「제주도 설화에 나타난 巨食性의 의미 연구 : 신화, 당본풀이, 전설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1~53쪽.
- 브루노 베텔하임, 『옛이야기의 매력』 1, 시공주니어, 2001, 1~256쪽.
- _____, 『옛이야기의 매력』 2, 시공주니어, 2001, 1~252쪽.
- 서정오, 『옛 이야기 보따리』, 보리, 2011, 1~546쪽.
- 손진태 편저·김종근 외 주해, 『조선신가유편』, 박이정, 2012, 1~383쪽.
- 신동훈, 「서사적 화두를 축으로 한 화소·구조 통합형 설화분석 방법 연구」, 『구비문학연구』 46집, 한국구비문학회, 2017, 35~83쪽.
- 신동훈, 「스토리텔링 원론:옛이야기로 보는 진짜 스토리의 코드」, 아카넷, 2018, 1~318쪽.
- 오세정, 「한국 설화에 나타난 폭력의 형상화와 의미화에 관한 연구」, 『기호학연구』 38집, 기호학회, 2014, 157~182쪽.

이정은, 『사람은 왜 인정받고 싶어하나』, 살림, 2008, 1~94쪽.

장덕순 외, 『구비문학 개설』, 일조각, 2012, 1~570쪽.

프랭스 지음·최상규 옮김, 『서사학이란 무엇인가-서사물의 형식과 기능』, 예림기획, 1999, 1~271쪽.

플로랑 켈리에 저·박나리 역, 『제7대 죄악 탐식』, 예경, 2011, 1~240쪽.

현길언, 『제주도의 장수설화』, 홍성사, 1981, 1~203쪽.

현용준·현승완 역주, 『한국고전문학전집29 제주도 무가』, 고려대학교 민속문화연구소, 1996, 1~462쪽.

ABSTRACT

The meaning of independence and self-realization through Big eating motif represented in 'The General Boribab'

Han, Sang-hyo

This argument has the purpose to clarify the aspect and significance of 'Big eating' which is an important motif in the narrative of <General Boribab>. Until now, the <General Boribab> has been dealt with in the aspect of giant myth and legend. A 'Big eating' motif is derived from a archetype that was restricted to symbolize power of the gods and giants. However, what is important to motif can be semantic openness and ambiguity. To further enrich the argument concerning <General Boribab>, the aspect of big eating and meaning should be globally investigated among narrative.

In order to solve these questions, I tried to clarify the ambivalent meaning of the 'big eating' and to pay attention to the problem of the relationship through appetite. clarifying the bilateral meaning with 'Big eating'. As a result, "lack of power" symbolizes the appearance of a hero who lost "personality" and "independence" because of dependence on oral phase.

However, <General Borobab> shows not only such dependence but also the growth of self and self-realization through the overcoming of trials. The important thing is 'leaving' and 'structure of repetition'. By leaving the way, the hero can get out of the dependence of the parent and establish opportunities to grow by forming a new social relationship. It also showed growing up to a larger presence, with the power to intelligence with instinctive power through a repeated structure.

In this way, the story of <General Boribab> provides a new sence and life problem of overcoming the dependce of existence and achieving a succes life while accepts the universal reason for the motif.

Key Words 'General Boribab', Big eating, lack of power, gluttony, dependence, syntagmatic structure, paradigmatic structure

논문투고일	: 2018.03.31
심사완료일	: 2018.05.09
게재확정일	: 2018.05.15